



천일기념 맞이 경축 공연

권호성 동덕이 연출 감독하는 뮤지컬로서
수운대신사의 일대기를 그려낸 한국의 대서사시

장소 : 천도교 중앙대교당

일시 : 4월 4일 19시 30분부터 21시 30분까지

천일기념식

157년째를 맞이하는 천도교 창도일로서
교단 최대의 경축일

장소 : 천도교 중앙대교당

일시 : 4월 5일 10시 30분 _ 식전 공연

4월 5일 11시 00분 _ 기념식

4월 5일 12시 00분 _ 식후 공연

천일기념 맞이 나눔축제

이웃과 떡을 나누며 다 함께 축하하는 자리로
천일기념일의 의미를 되새기는 날

장소 : 천도교 중앙대교당

일시 : 4월 5일 10시부터 13시까지



포덕 157년 **천일기념**

식 순

1. 개 식

1. 청수봉전

1. 심 고

1. 주문3회병송

1. 경전봉독 _ 포덕문

1. 기념송 합창 _ 1~3절

1. 기념사 _ 천도교 교령

1. 축 사

1. 포상 및 장학증서 수여

1. 천덕송 합창 _ 제15장 천일기념가

1. 심 고

1. 폐 식

수운 최제우(水雲 崔濟愚) 대신사 약력

- 포덕전 36년(1824) 10월 28일 경주 월성군 현곡면 가정리에서
부친 경주 최 씨 옥과 모친 한 씨 사이에서 탄생하시다.
처음 이름은 제선(濟宣) 자는 도연(道彦)이시다.
- 포덕전 29년(1831) 모친 환원하시다.
- 포덕전 20년(1840) 부친 근암공 환원하시다.
- 포덕전 18년(1842) 울산의 밀양 박씨와 혼인하시다.
- 포덕전 17년(1843) 집이 불타 용담정으로 이사하시다.
- 포덕전 16년(1844) 주유천하에 나서시다.
- 포덕전 6년(1854) 주유천하를 마치고 울산 호암동(일명 여시바윗골)에
초가삼간을 짓고 구도의 수행에 들어가시다.
- 포덕전 5년(1855) 3월에 호암동에서 을묘천서를 받으시다.
- 포덕전 4년(1856) 양산 천성산 내원암에서 수행하시다가
숙부의 환원을 직관하시고 47일 만에 하산하시다.
- 포덕전 3년(1857) 천성산 적멸굴에서 다시 49일간의 기도를 마치시다.
- 포덕전 1년(1859) 10월에 경영하던 철점이 파산되어
집과 땅을 채권자에게 넘기고 용담으로 돌아오시다.
2월에 입춘시를 지으시며 구도의 결의를 다지시다.
- 포덕 1년(1860) 이름 제선을 제우(濟愚)로, 자 도연을 성묵(性默)으로,
호를 수운(水雲)으로 고치시다.
4월 5일 용담에서 한울님으로부터 무극대도를 받으시다.
5월 용담가를 지으시다.
- 포덕 2년(1861) 6월부터 포덕을 시작하자
어진 선비들과 민중들이 구름처럼 모여들다.
7월에 포덕문, 8월에 안심가를 지으시다.
11월에 유생들이 서학으로 몰아 관으로부터 탄압이 있자

- 포덕 3년(1862) 제자 최중희를 데리고 남정길에 오르시다.
- 12월 호남지방 남원 교룡산성 은적암(隱跡庵)에 은거하시다.
- 1월 권학과와 논학문을
- 6월 수덕문과 몽중노소문답가를 지으시다.
- 7월 경주부 청송으로 돌아와 박대여의 집에 머무시다.
- 9월 많은 제자가 출입하자 경주영장은 대신사를 체포,
이 소식을 들은 도인 5~6백 명이 모여 영장에게
항의하자 5일만에 석방하다.
- 10월 14일 처신을 신중히 하라는 통문을 띄우시다.
- 11월 9일 흥해 매곡동 손봉조의 집으로 옮기시다.
- 12월 26일 연원의 효시가 되는 접주(接主)를
- 포덕 4년(1863) 최초로 임명하시다.
- 3월 9일 용담정으로 돌아와 필법을 지으시다.
- 4월 좌잡을 지어 강수에게 주시다.
- 6월 개접(開接)하여 많은 도인에 가르침을 베푸시다.
- 7월 23일 파접(罷接)하시다.
- 이날 최경상에게 해월(海月)의 도호를 지어주시고
북도중주인(北道中主人)으로 임명하시다.
하순에 도덕가를 지으시다.
- 8월 초순 흥비가를 지으시다.
- 8월 14일 최해월에게 도통(道統)을 전수하시다.
- 11월 불연기연을 지으시다.
- 12월 10일 조정에서 파견한 선전관 정운구에게 붙잡히시다.
대신사와 이내겸은 서울로 압송되고
나머지 30명은 경주옥에 하옥되다.
- 12월 20일 과천에 당도했다가 철종의 국상(國喪)을 당하여
경상감영에 환송되시다.
- 포덕 5년(1864)
- 1월 6일 대구 감영에 갇히시어
- 20일부터 혹독한 신문(訊問)을 받으시다.
- 3월 10일 좌도난정률의 누명을 쓰고
대구 관덕당에서 참형을 받아 순도하시다. (41세)



기 념 사

동덕 여러분!
모시고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수운대신사께서 동학 천도교를 창도하신 지 제157주년이 되는 천일기념일입니다. 개벽 후 오만년 동안 노이무공하시던 한울님이 수운대신사를 만나 성공하고, 한울과 사람과 만물이 더불어 새로워짐을 선포하신 후 천 개벽의 첫날입니다. 대신사께서 “천은이 망극하여 경신(1860) 사월 초오 일에 글로 어찌 기록하며 말로 어찌 성언할까?”라고 할 만큼 무궁한 한울님의 은혜와 지혜가 이 세상에 다시 밝혀진 후천 개벽 새 세상의 첫날입니다.

수운 대신사께서는 십여 년의 주유천하 구도 끝에 천도를 받으시고, 수도절차와 도법을 마련하고 포덕천하 광제창생의 길을 가르치시다가 순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도통은 해월신사와 의암성사와 춘암상사님으로 이어져 오늘 우리에게 이르고 있습니다. 후천개벽이 새로 시작된 천도교 창도기념일을 맞으며 동덕 여러분,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한울님의 감응이 함께 하시어 한울 사람 한울 세상이 되기를 심고합니다.

참된 천도교인은 한울님이 주신 사명과 직분이 무엇인지를 알고, 스승님

의 가르침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신앙인입니다. 공명심을 버리고 군자 사람으로 거듭남으로써 스스로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살림꾼입니다. 한울님과 스승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정성과 공경과 믿음을 다하여 수련 정진함으로써 천명사훈을 알고 실천하는 수도자입니다. 그리하여 바르고, 밝고, 착하고, 의롭게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천덕사은을 공부하고 베풀어 조화가 정해지고 만사지 되는 지상천국을 향하여 한 걸음씩 나아가는 수행자입니다. 오늘 천일기념일은 우리 모두가 몸과 마음을 다시금 새롭게 하는 기쁘고 복된 날입니다.

우리는 지난 3월 17일, 제38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를 통하여, 앞으로 3년 동안 교단의 진로를 새롭게 정하였습니다. 대도 중흥의 길로 다함께 나아가기로 다짐하였고, “참신하고 정의로운 사람! 정성하고 공경하는 태도! 멀리보고 함께하는 정책!”이라는 구체적인 행동 규범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저는 천도교 교령으로서 “천도의 진리를 기본으로 신앙심을 더욱 다지며, 숙덕 어른들의 지혜와 젊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계승과 발전을 통해 포덕천하의 기틀을 다지겠습니다”라고 약속하였습니다. 저는 그 약속이 한 개인의 목표가 아니라, 한울님이 정하신 각수직분에 따라 천도교의 모든 기관에 임하는 교역자들의 기본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세상을 바라보면, 개혁의 과제는 실로 막중한 무게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의 갈등은 냉전 시대로 회귀하는 것은 물론,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서구 사회가 수백 년에 걸쳐 이룩한 것을 수십 년 만에 이룩하였다고 자랑하던 민주주의 역시 그 허약함과 허술함이 날날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인류는 인간 정체성을 재정의해야

하는 최첨단 과학문명의 시대와, 빈익빈 부익부의 불평등 심화, 성장 신화의 종말이라는 전대미문의 경제상황을 눈앞에서 목격하고 있습니다. 물질문명의 발달 속도에 정신문명의 성장이 따르지 못하여 이 사회와 세계 구석구석에서 인륜을 저버리고, 생명을 파괴하며, 천명을 거역하는 일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인간의 수명은 날로 늘어가고 있지만, 공동체 의식은 날로 파괴해지고 있어 개인의 삶은 불안과 불만과 불행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민족과 인류의 문제이며, 천도교의 문제이며,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겨 나가야 할 두려움의 근원입니다.

이로 보면 157년 전 수운 대신사께서 보국안민의 계책을 염려하시던 그때와 조금도 달라지지 못한 듯합니다. 그러나 동학 천도교는 간난신고의 역사 속에서 스승님들과 선열들의 순도 순국의 정신을 이어 나갈 수 있는 힘을 길러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의 운수가 다시 동학 천도교로 돌아오는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오늘 천일기념일을 맞아 다시금 천도교의 진리를 널리 펴므로써 나와 가족과 민족과 세상사람 모두, 나아가 천지만물이 도성입덕하는 세상을 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해야겠습니다.

일찍이 수운대신사께서는 한울님으로부터 받은 천도의 이치를 집약한 21자의 주문 중 모실 시(侍) 자의 뜻을 풀어 말씀하시기를 “모신다는 것은 안으로 신령함이 있고 밖으로 기화가 있어 온 세상 사람들이 각각 알아서 옮기지 못함을 아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러한 천리를 바탕으로 우리 신앙을 성숙하게 하고, 우리 교단을 성장하게 하고, 마침내 대도의 중흥을 이룩하는 길로 나아가는 데에 신명을 바칠 것입니다.

한울님 모심을 깨닫고, 한울님과 내가 둘이 아니요 하나임을 깨달아 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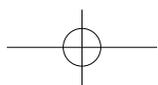


음의 기둥을 굳건히 세우는 것이 내유신령의 참뜻입니다. 한울님이 감응하시어 내가 있고, 내가 살고, 내가 일함을 아는 것이 외유기화의 출발점입니다. 나만이 아니라 이 세상 만물이 한울님을 모심을 알고, 경천 경인 경물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각지불이의 삶입니다.

첫째, 안으로 신령함을 갖추어(內有神靈) 대도 중흥하는 일입니다. 수련을 생활화하고 생활 속에서 도를 실천해 나가야겠습니다. 전문교역자를 양성하고 인재 발굴과 영입을 계속하여, 공력과 공덕과 공심을 기르는 도력을 강화해 나가야겠습니다. 그것은 결국 나 스스로 기쁨에 넘치고, 물오동포 인오동포 모두가 행복에 넘치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둘째, 밖으로 기화 상통하여(外有氣化) 대도 중흥하는 일입니다. 교정일치를 통한 사회운동과 통일운동을 선도하고,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보국안민을 실천하기 위하여 천도교사 속에서 쌓아온 개혁운동의 성과를 계승할 것입니다. 특히 3·1운동100주년사업, 동학혁명기념사업, 어린이가 행복한 나라 사업, 시천주복지재단 사업을 정성을 다하여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셋째, 포덕천하의 길로 대도 중흥하는 일입니다. 온 세상 사람이 각각 지상신선의 길로 나아가 이 땅에 한울님 세상을 건설하는 것이 천명입니다. 받은 은혜를 베푸는 데서 길러지는 것이 천덕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며 나아가면 그 뒤로 자취가 나타나는 것이 천도입니다. 천명과 천덕과 천도는 시작이자 끝이 됩니다. 천도문화로 세상과 소통하고 세계 포덕의 기반을 구축하여 세상 속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천도교, 새로운 한울 문명의 시대를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전국의 동덕 여러분!

지금은 대전환의 시간, 다시 개혁의 시간입니다. 천도교단이 커지고 천도교인이 많아지는 것이 대도 중흥이 아니라 이 땅에 한울님의 덕과 지혜가 널리 퍼지고, 세상 사람들이 각자위심의 미망에서 깨어나 동귀일체의 천리로 돌아오는 것이 대도 중흥입니다. 오직 한울님을 모시고 스승님 가르침에 따라, 교인들의 마음을 헤아리며 이치에 순응한다면, 대도 중흥은 큰 비 내리듯 되어 갈 것으로 굳게 믿습니다. 우리 함께 대도 중흥의 길로 나아갑시다!

북녘의 천도교인 여러분!

지금 깊은 수렁에 빠져든 남북 정세는 마치 새벽이 오기 전의 어둠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과 이 세상에 새날, 새 세상의 광명을 앞서서 비추어낼 사명을 가진 것이 우리 천도교인들입니다. 남북의 화해와 상생은 이 세상에 봄소식을 전하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남과 북의 천도교인들이 신명을 바쳐 이 얼어붙은 남북 관계를 풀어나가기 위한 소중한 만남을 시작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미 남과 북의 천도교 사이에 굳건히 합의한 사업들을 하나씩 이행하는 것으로부터 더 크고, 더 멀고, 더 넓은 차원의 과제들도 함께 풀어나갈 기운을 일으켜 나갑시다. 남북이 공유하고 공감하는 동학의 사상과 역사, 3·1 운동의 이념과 이상의 최전선에 선 천도교인으로서 순도의 각오로 나서서 남북의 화해, 동북아의 평화, 세계의 새 시대를 열어나갑시다!

남과 북의 정치인들에게 호소합니다.

오늘, 보국안민의 무극대도, 천도교 창도기념일에 즈음하여 남북 사이의 대결과 갈등을 종식하고 민족 상생과 평화의 시대가 열릴 수 있도록 대화합의 길로 나아갈 것을 간절히 염원합니다. 3년 앞으로 다가오는 3·1운동 100

주년이 남북 모두의 축제일이 될 수 있도록 올해부터 남북 대치의 최전선에 통일의 전당을 건설하는 데 역사를 시작합니다. 남북한의 군사적, 경제적 장애와 국제사회의 우려를 제거할 주춧돌로서 3·1 운동 100주년을 휴전선 위에 우뚝 세웁시다. 이로써 3·1 독립선언서에 천명된 세계 공존의 시대, 인류 상생의 시대, 생명평화의 시대가 한반도에서부터 시작되는 기적을 보여줍시다!

우리가 한울님과 부모님의 은덕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고, 스승님의 은덕으로 천도교에 입도하여 시천주 조화정 만사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실로 천복입니다. 수운 최제우 대신사께서는 육신의 생명을 바쳐 천도의 명운을 살리신 후천 천황씨입니다. 그 성령은 무궁히 출세하여 우리와 함께하면서 꽃 피는 후천 개혁의 동산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그 생명의 기운과 마음이 온 세상에 가득 차오르는 춘삼월 호시절에 맞이하는 천일기념일에, 한울님과 스승님의 가르침과 은덕을 생각하며 후천개혁의 새날을 꿈꿉니다. 오늘 천일기념일을 맞으며 천도교 창도 정신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고, 입도하던 그날의 마음을 되살리고, 안팎을 겸전하고 천지만물과 더불어 동귀일체하여 대도 중흥을 이루어 나갈 것을 다시금 다시 한 번 심고합니다.

포덕 157(2016)년 4월 5일

교령 이 정 희 心告

제13장 기념송



1. 천 - 은 이 망 극 하 여 경 신 사 월 초 오 일 에
 2. 한 - 올 님 하 신 말 씀 개 - 벽 후 오 만 년 에
 3. 나 도 성 공 너 도 득 의 너 회 집 안 운 수 로 다



1. 글 로 어 쨌 기 록 하 며 말 로 어 쨌 성 언 할 까
 2. 네 가 또 한 침 이 로 다 나 도 또 한 개 벽 이 후
 3. 이 - 말 씀 들 은 후 에 심 - 독 회 자 부 로 다



1. 만 고 없 는 무 극 대 도 여 몽 여 각 득 도 로 다
 2. 노 이 무 공 하 다 가 서 너 를 만 나 성 공 하 니
 3. 무 극 대 도 닷 아 내 니 오 만 년 지 운 수 로 다

후렴

기 장 하 다 기 장 하 다 이 내 운 수 기 장 하 다

중 을 시 고 중 을 시 고 이 내 신 명 중 을 시 고

제15장 천일기념가

1. 한 울 님 의 높 으 신 - 목 소 리 로
 2. 한 울 님 은 높 으 려 말 - 라 하 소 시 - 며 서 서
 3. 한 울 님 이 이 솟 우 우 려 리 스 나 - 서 서
 4. 한 울 님 이 이 솟 우 우 려 리 스 나 - 서 서
 5. 한 울 님 이 이 솟 우 우 려 리 스 나 - 서 서

1. 우 리 스 승 을 크 게 부 르 실 - 떠
 2. 우 리 스 승 을 크 게 부 르 실 - 떠
 3. 처 음 마 음 이 곧 그 음 진 정 하 실 - 떠
 4. 내 마 음 이 곧 그 음 진 정 하 실 - 떠
 5. 맘 이 기 - 빠 헤 로 즐 기 실 - 떠

1. 구 질 구 질 오 - 는 비 는 개 었 고
 2. 맑 - 은 밤 - 을 바 람 은 천 는 개 었 고
 3. 큰 - 밤 - 을 바 람 은 천 는 개 었 고
 4. 잔 - 나 비 부 르 짓 음 우 는 는 히 탐 불 소 - 고
 5. 온 우 주 를 비 치 려 는 아 - 칩 - 고 해

1. 검 은 구 림 은 사 라 졌 구 나
 2. 용 담 물 결 은 고 요 하 구 나
 3. 새 벽 의 소 식 을 전 해 주 누 나
 4. 봉 황 의 소 식 을 전 해 주 누 나
 5. 등 실 소 동 - 실 며 - 오 른 다

후렴

거룩하신 스승 말씀에

사람이 곤한 울인 - 즐

우리들이 깨달았으니

잊지 못할 이 -- 아 - 침

“근원 없는 물이 없고, 뿌리 없는 나무 없다.”

일찍이 민족시인 신동엽은 대서사시 「금강」에서 수운 선생을 석가 예수와 더불어 세계적인 성인으로 조명한 바 있다. 국내외에서도 유명한 철학자 김용옥과 시인 김지하도 강연과 저술을 통해 수운 선생을 공자와 예수에 버금가는 위대한 성자라고 하였다.

또한, 동방사상 및 동학사상에 조예가 탁월했던 범부 김정설은, “최제우는 천계를 받아, 흩어져 무질서한 천 년의 적막을 깨트리고 역사적 대강령을 이루었다. 동시에 신도성시 정신의 기적적 부활이며, 국풍재생의 경이로운 사태로서 어마어마한 역사적 대사건이었다.”라고 강조하여, 수운 선생의 득도와 동학 창도는 시대의 혁명을 넘어 새로운 개벽의 세상을 열었다는 의미를 부여했다.